

# 알·쓸·국·취

알아두면 쓸모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든든하게 지원하고 응원합니다”

국취와 함께하는 수당 총정리

## 구직촉진수당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I 유형 참여자에게 매월 50만 원씩 6개월간 지원합니다.



**가족수당** 부양가족 1인당 월 10만 원(최대 40만 원) 추가 지원

## 취업활동비용

II유형 참여자가 취업지원서비스에 참여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초기상담 및 진단 (3~4주)

직업능력 향상 (최대 6개월)

취업상담 (3개월)

취업활동계획 수립 참여수당 (15~25만 원)

▶ 훈련참여지원수당 (월 최대 28만 4천 원)

▶ 참여 장려수당 (최대 6만 원)

## 조기취업성공수당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 취·창업 시 지급합니다.

**I 유형** 구직촉진수당(기본수당) 잔액의 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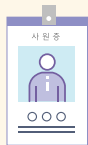
**II 유형** 조건부수급자: 50만 원



## 취업성공수당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가 6개월 근속하면 1회차에 50만 원을, 12개월간 근속하면 2회차에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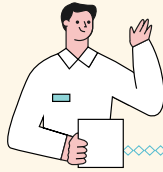
**대상** 가구단위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 또는 II유형 중 특정계층 참여자



※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 또는 국취 누리집(www.kua.go.kr)에서 확인

# 국취 현장인터뷰

고용노동부 성남지청-분당경찰서 맞춘 “범죄 피해 위기가정·위기청소년의 취업과 자립을 돕겠습니다”



정연숙 소장(성남고용복지플러스센터)

## Q 분당경찰서와의 협업은 어떻게 이뤄진 건가요?

**A** 범죄 피해를 입은 위기가정의 구성원이나 위기청소년이 취업을 통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는데요. 분당경찰서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고용·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 Q 대상자에게는 어떤 고용·복지서비스가 제공되나요?

**A** 우선 성남고용복지+센터에 입주해있는 성남시 복지자활 및 여성 새일센터 담당자가 함께하는 사례관리협의체에서 금융, 심리, 건강 등 취업장애요인을 해소하도록 지원합니다. 이와 동시에 사례자 맞춤형으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Q 협약 이후 진행된 사례가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A** 가정폭력피해자로 분당경찰서에 접수된 K씨는 남편과 분리조치됐지만, 주 소득자인 남편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이 끊겨 자녀 학비와 생계가 막막한 상황이었어요. 경력단절, 연령문제(40대), 자격증 미보유로 재취업도 어려웠고요. 심리안정, 경제적 자립을 목표로 국취와 연계됐고, 직업훈련을 받고 베이커리 창업을 준비 중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연계해 창업 자금 대출을 위한 금융지원과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고용·복지가 만나 취업과 자립을 돕는 좋은 사례가 되길 바랍니다.

## 사례자에게 제공된 고용 및 복지서비스

고용 서비스

심층상담을 통한 진로설정, 창업기술 습득을 위한 직업훈련, 창업 정보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컨설팅 지원 연계

복지 서비스

심리안정 프로그램 진행,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긴급생계비 신청 안내

제 4호

2023.8.18.

국민취업지원제도 소식지

# 취업으로 가는 길 국·취·로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청년, 경력보유여성, 장기구직자 등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을 함께 제공합니다.



국번없이 1350

## 국취 피플 참여자

면접 트라우마 극복하고  
당당한 직장인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정성희(가명) - OO테크 취업 / 창원고용복지플러스센터



“고교 졸업 후 특별한 기술도, 자격증도 없이 취업에 도전하다 보니 면접에서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자존감은 낮아지고 우울감은 더 높아졌어요. 몇군데 취업도 했었지만, 내성적인 성격 때문인지 적응이 힘들어서 오래 다니질 못했죠.”

홀어머니와 살며 가장 역할을 해오던 정성희(가명, 36세) 씨는 장기간 경력단절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나마 나오는 생계급여도 어머니에게 드리고 나면 늘 빈손이었다. 빨리 취업하고 싶었지만, 마음처럼 쉽지 않았다. 그즈음 구청을 통해 국취에 참여하게 되었다.

“상담사님이 불안과 우울감부터 떨쳐내자고 하시면서 심리안정 프로그램을 연계해주셨어요. 상담사님 추천으로 면접 기회도 몇 번이나 있었지만, 긴장해서 계속 떨어지니까 집중 면접 컨설팅과 AI 모의면접으로 면접 공포증을 극복할 수 있게 도와 주셨어요. ‘구인·구직만남의 날’ 채용행사에도 참여하게 해주셔서 현장면접도 봤고요. 그러면서 조금씩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구직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이력서, 자기소개서 첨삭을 받으며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기도 했다. 이후 성희 씨의 희망 직종(사무직)과 조건(운전 불가로 대중교통 출퇴근 희망)을 반영해 맞춤형 취업알선이 이뤄졌다.

“여러 조건이 괜찮았던 OO테크 면접이 보류되는 상황이었는데 상담사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대표님께 저를 적극 추천해 주셔서 면접을 볼 수 있었어요. 너무 떨렸지만, 그동안 연습해온 대로 면접을 잘 봤고 경리사무원으로 합격했죠. 저도 드디어 당당한 직장인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했어요. 빨리 취업할 수 있게 물심양면 애써주신 상담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담당 - 김주아 상담사



## 국취 알림판

고용노동부와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행복기금이  
취업과 신용회복을 함께 지원합니다

### 취업행복+더하기 채무조정 제도

청년·취약계층 금융채무자가 고용복지\*센터 초기(진입)상담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시 채무 추가 감면, 취업성공지원금 등 각종 금융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대상

한국자산관리공사·국민행복기금  
청년·취약계층 채무자(채무조정 미약정자)

※ 8월 국민행복기금 채무자를 대상으로 시행 후  
11월경 한국자산관리공사 채무자로 확대 예정

#### 참여 인센티브

1단계 또는 2단계 참여

▶ 채무조정 약정(기본 감면(30~70%) + 추가 감면)

#### 1 단계

##### 행복더하기

고용복지\*센터 진입(초기) 상담 후 채무조정 약정 시

- 1년간 채무조정 1+1 감면\* 혜택

\* 1회 상환 시 다음 1회 상환 면제

#### 2 단계

##### 취업더하기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후 채무조정 약정 시

- 2년간 채무조정 1+1 감면 혜택

#### 3 단계

##### 도약더하기

취업성공 후 3개월 근무 시 취업성공지원금 지급

\* 국취 취업성공수당 선택 가능

#### 공통

##### 1·2단계 공통

상환유예 3개월 지원(12개월 한도), 햇살론15 대출 지원,  
성실 상환자 대출

☎ 캠프 콜센터: 1588-3570

### 지원사례

#### ▶ 상담만 받았는데 채무 상환 감면 혜택을 받았어요

고용복지\*센터에서 진입(초기) 상담만 받았는데도 기본 감면에 채무조정 1+1 지원을 받아서 상환 첫해 짝수달에 6번이나 상환을 면제 받게 되었어요.

#### ▶ 생계부담도 덜고 취업도 성공하고 일석이조예요

국취에 참여해서 취업도 하고 24개월 동안 짝수달에 총 12번 상환을 면제 받아요. 업무에 집중하면서 자립기반을 마련하게 돼서 뿌듯해요.

## 국취 피플 상담사

진로 재설정으로  
취업 장벽 극복했죠

김다해미 - 상담사 / 광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한 강준철(가명, 26세) 씨는 녹내장 질환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사회복지 분야로 취업하고 싶지만, 컴퓨터 작업이 많은 사무 업무는 시력을 잃을 수 있어서 조심스럽다. 실제로 사회복지사로 취업했다가 업무 부담을 느껴 2주 만에 그만둔 적도 있다.

“사회복지사 구인 공고를 찾다 보니까 분야에 따라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장업무와 컴퓨터 작업을 주로 하는 사무업무의 비중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사무업무가 많은 종합사회복지관 보다는 현장업무 비중이 높은 노인, 장애인 복지 분야로 진로를 재설정했어요.”

김다해미 상담사는 우선 구직기술과 업무능력 향상에 집중했다. 사회복지 직종은 난이도 높은 컴퓨터 작업능력을 필요로 하는 곳이 많기에 컴퓨터활용능력 2급 자격을 취득하도록 안내했다. 직업훈련 수료 후에는 1:1 서류클리닉과 면접컨설팅도 진행했다.

취업알선은 광주 북구청 일자리센터와 연계해 총 13회에 걸쳐 공동으로 지원했다. 그 결과, 장애인시설 사회복지사로 취업했다. 장애인 생활지도 업무 등을 맡은 준철 씨는 오는 9월 취업성공수당 50만 원도 받게 된다.

“취업하면 기초생활 수급이 중지되니까 내심 걱정됐으나 봐요. 가족 중 본인 수급권만 중지될 거라고 하니깐 안도하더군요. 생계부담을 덜 수 있도록 서민금융진흥원의 금융지원제도를 연계하려고 해요. 걱정도, 불안도 사라졌다는 준철씨에게 밝고 건강한 나날들이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